



이시우 박사가 쓰는 불교와 수족

운석충돌과 대멸종

1908년 6월 30일 새벽 시베리아 중부 퉁구스카 지역에서 강력한 빛과 함께 굉음이 울리면서 열풍이 불고 마차가 80리를 날아가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 후 구 소련 과학원 탐사팀이 그 지역을 조사한 결과 사망 120리에 걸쳐 숲이 타고 쓰러져 황폐화되었음을 발견했다. 이 정도로 큰 피해가 일어났다면 세계 2차대전 말 일본의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 폭탄 140개 규모의 위력을 가진 폭발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거대한 규모의 운석충돌로 보고 그 흔적을 찾아보았지만 운석의 잔해를 발견하지 못해서 이 사건은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그러면 지상에 운석충돌이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 과거의 운석충돌의 기록을 조사해 보면 지름 100m의 운석은 수천년에 한 번 정도 떨어질 확률이며 그 충돌위력은 히로시마 원폭의 1800배이고, 1천m 크기의 운석은 10만년에 한번 떨어지며 그 위력은 히로시마 원폭의 1억 8천만 배에 해당한다. 그리고 10km 크기의 운석은 1억년에 한번 떨어지고 충돌 규모는 히로시마 원폭의 18억 배이다. 매년 1번 꼴로 떨어지는 운석충돌의 위력은 히로시마 원폭의 3천 분의 1로 적지만 300년에 1번 꼴로 떨어지

는 운석충돌의 위력은 히로시마 원폭의 143배로 높다. 지구 전체에 재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큰 규모의 운석충돌은 100만년에 한번 꼴이며 그 위력은 히로시마 원폭의 1천 4백만 배에 해당한다.

환경파괴 운석충돌 피해 못잖아

1980년 미국의 알바레스 박사는 크기가 10km인 유성체가 초속 40km의 속도로 지구에 들어와 충돌하면 그 위력은 히로시마 원폭의 14억 배에 해당하며, 충돌로 생기는 구멍의 지름이 약 400리~500리 정도 된다고 했다. 그리고 충돌의 결과로 많은 먼지가 하늘로 솟아 올라가 먼지 구름으로 지구를 덮어 햇빛을 차단해 식물의 성장이 어려워져 먹이사슬이 끊어진다. 그리고 삼시간에 일어나는 거대한 열풍으로 많은 산림과 가옥이 파괴되고 대기 오염으로 산성비가 내리며 햇빛 차단으로 빙하가 타한다. 이 결과 지구에 생물의 대멸종이 초래된다. 알바레스 박사는 이러한 규모의 큰 운석충돌은 6500만년 전의 공룡 대멸종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멕시코 정부는 유카탄 반도 북쪽 해안지대에서 유전탐사를 위해 오랫동안 항공기로 중력탐사를 실시했다. 여기서 최소무브를 중심으로 지름 180km인 지하 운석 구덩이의 존재를 발견했으며, 그 지역에 흩어진 운석 잔해의 분석에서 6500만년의 나이가 나왔다. 이것은 알바레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지구 역사상 5번의 대멸종이 있었다. 즉 4억 5천만년 전, 3억 6천만년 전, 2억 2천만년 전, 2억 5천만년 전 그리고 6500만년 전에 일어난 사건들이다. 앞서 4번의 대멸종 사건들은 운석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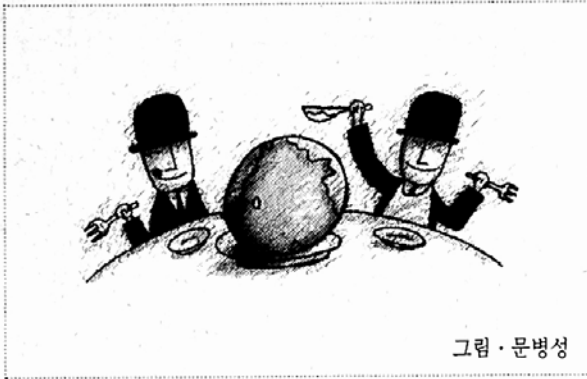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열대우림 지역 매일 74종 소멸

“여섯번째 대멸종 시작” 경고

불법 익혀 올바르게 살아야

돌 보다는 지구 자체의 지각 변동에 따른 변화에 기인된 것으로 본다. 6500만년 전의 공룡 대멸종도 일부 지질학자들은 이 때부터 이미 공룡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보고, 운석충돌을 주된 원인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유카탄 반도에서 일어난 거대한 운석충돌이 공룡의 멸종을 촉진시켰을 가능성은 매우 높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서 이들이 지구의 인력권에 들어오면 큰 운석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는 소행성탐사 관측을 계속하면서 지구에 접근 가능한 천체를 찾고 있다. 만약 이런 천체가 발견되면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핵전쟁을 한 인공위성을 이 천체에 접근시켜 파괴시키거나 또는 궤도를 바꾸어 지구와 충돌을 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한편에서는 외계

천체와 지구의 충돌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인은 부의 창출을 위해 스스로가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다. 더욱이 지구 전체의 7%인 열대 우림지대의 파괴로 매일 약 74종의 생물이 멸종되고 있기에 사회 생물학자인 윌슨은 “인류가 단 한 세대에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종류의 종(種)들을 죽음으로 몰아감으로써 여섯 번째의 대멸종을 시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현대인들은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이익, 야만, 아집을 지닌 ‘살의 눈’에 빠져있기 때문에 다른 종의 생명에 큰 관심이 없고, 또 외계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다. 올바르게 사는 법을 알려면 먼저 올바르게 죽는 법을 아는 것이 불법을 제대로 익히는 것인데, 모두가 잘 살고자만 하는 욕심 때문에 내로의 지구의 종말을 재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

오늘날 불법(佛法)을 배우는 자는 반드시 참되고 올바른 견해(見解)를 구해야 한다. 만약 참되고 올바른 견해를 얻는다면, 삶과 죽음에 물들지 않고 가고 머무름에 자유로와서, 수승(殊勝)함을 구하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수승함에 도달할 것이다.

마음공부가 시작되는 시점은 의식의 구속에서 풀려나는 때이다. 그 이전의 공부는 알음알이로 찾고 느낌에 의존하며 의지로 밀고 나아가는 것으로서 모두 의도적이고 조작적인 유행행(有爲行)이다. 이러한 의식적 행위는 공부라기 보다는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 헤매고 다니는 것으로, 아직 길을 찾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마음공부의 시작은 길을 찾은 뒤에야 비로소 시작된다. 그러므로 우선 지나야 할 중요한 관문은 길을 찾는 것이다.

마음공부의 길을 찾는 것은 꿈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다. 범부들은 의식이 라는 꿈속에서 살고 있다. 그들은 이

꿈이 무상하고 허망하여 믿을 수 없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여기에서 깨어나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한 번도 꿈에서 깨어나는 적이 없기 때문에 깨어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깨어남이 어떤 것이

이제 악몽을 꾸는 경험을 돌이켜보자. 새나온 짐승이 다가오는 꿈이다. 저기에서 무서운 이빨을 보이며 짐승은 다가오는데 다리는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짐승은 점점 다가오고 두려움은 더욱 커진다. 이때쯤이면

모르게 크게 고함을 지른다. 바로 그 순간 출연 잠에서 깨어난다. 마음공부에서 길을 찾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현재 의식 속에서 깨어나는 것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해야 깨어날 수 있다고 의식적으로 이해하고, 그 이

깨어남 체험-의심 사라지고 평안이...

며 어떻게 하여 깨어난다는 가르침을 찾는다. 그러나 그러한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여도 그들은 깨어남을 여전히 꿈속의 일과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한 번도 깨어남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실이 아니라 꿈이라는 것이 느껴진다. 그리하여 열린 깨어나고 싶다고 하여도 그들은 깨어남을 여전히 꿈속의 일과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한 번도 깨어남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해에 따라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의식이라는 꿈속의 일로서 실제 깨어남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직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깨어남을 갈구하는 것이 의식 속에서 의식이 아닌 깨어남의 체험을

가져다준다. 깨어나 뒤엔 어떤 깨어남과 의식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지만, 깨어나기 전에 의식적으로 이해한다면 깨어남이란 의식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아직 의식 속에 있는 사람은 깨어남에 대하여 어떤 상상도 하지 말고 그저 깨어남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서 막연하게 그러나 절실히 그 깨어남을 갈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 갈망이 충분히 익어서 때가 되면 어떤 뜻밖의 기회에 문득 깨어남의 체험을 하게 된다. 그때야 그는 이 체험이 전혀 뜻하지 못한 새로운 것이면서도 너무나 당연하고 편안한 것으로서 자신이 막연히 원해온 바로 그것임을 알 수가 있다. 그리하여 의심과 갈망이 사라지고 편안함이 남는 것이다. 그때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의식적 삶도 깨어남과 별개의 것이 아님을 비로소 알고 늘 사용하는 그것을 그대로 사용할 뿐이다.

김태완 · 부산대 강사, 철학 http://www.mindfree.net/



‘임제록’ 통한 선 공부 ⑥

절실하게 갈망하라

가져다준다. 깨어나 뒤엔 어떤 깨어남과 의식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지만, 깨어나기 전에 의식적으로 이해한다면 깨어남이란 의식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아직 의식 속에 있는 사람은 깨어남에 대하여 어떤 상상도 하지 말고 그저 깨어남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서 막연하게 그러나 절실히 그 깨어남을 갈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 갈망이 충분히 익어서 때가 되면 어떤 뜻밖의 기회에 문득 깨어남의 체험을 하게 된다. 그때야 그는 이 체험이 전혀 뜻하지 못한 새로운 것이면서도 너무나 당연하고 편안한 것으로서 자신이 막연히 원해온 바로 그것임을 알 수가 있다. 그리하여 의심과 갈망이 사라지고 편안함이 남는 것이다. 그때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의식적 삶도 깨어남과 별개의 것이 아님을 비로소 알고 늘 사용하는 그것을 그대로 사용할 뿐이다.

김태완 · 부산대 강사, 철학 http://www.mindfree.net/



“명단공개·고발센터 운영”

고위층 불법호화모여전

장묘문화 개선과 환경 파괴 등을 막기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1년이 넘었지만 정·재계와 학계 등 기득권층의 불법 호화묘지 조성 행태는 바뀌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런 불법묘지를 만든 상당수가 현행법을 무시하거나 위법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묘지 설치 실태를 조사했던 종교 시민 사회 환경 여성 등 36개 단체로 꾸려진 ‘생활개혁실천협의회’는 불법 호화묘지를 만든 유족 17명에게 불법 사실을 통보하고 해명을 요청했으나, 이 가운데 7명만 답변을 보내왔고 나머지는 묵살했다고 2일 밝혔다. 협의회 관계자는 “장사법 홍보가 부족하고 자치단체마저 위법 행위 단속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올해도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벌여 불법 호화묘지 설치자 명단을 공개하고, 고발센터(www.life21.or.kr, 02-773-0416)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화장과 납골묘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 1954년에 3.6%이던 화장율은 91년에 17.8%, 2000년엔 33.7%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변화는 상황의 급박함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 미미하다. 이웃 일본의 화장률은 99%, 태국 90%, 기독교국가라 할 영국도 68%나 된다. 이제라도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모든 흉과 흉은 다 나의 옛 품이고 모든 불과 바람은 다 나의 본체” (범망경)임을 깨달아 장묘문화의 숭선수법을 보여야 할 것이다.

■무릇 죽음이란 형상이 무너지고 정신만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인은 몸을 환난으로 여기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보배로 여겨서 죽음이 이르기까지 싫어함이 없구나.

<불설보요경>

■사람은 한 번 죽지않으면 안 된다. 빛은 한 번 어둠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우주의 가르침이다. 일체 세계에 태어난 것은 모두 사(死)에 돌아간다.

<열반경>

영어로 배우는 불교영어

공양 Offering 향 Incense

In Buddhism, incense has particular meaning of liberation. Incense is not simple taken as a material but as a symbol of nirvana and buddhists burn the incense as an offer. Candle light or lantern is a symbol of wisdom in Buddhism.

불교에서 향은 해탈의 의미를 가진다. 향은 단순한 용품이 아니라 열반을 상징하며 불교신자들은 공양의 의미로 향을 태운다. 초나 등의 빛은 불교에서 지혜를 상징한다.

Flowers bring fruits at last. As flowers, liberation is accomplished by endless efforts. And flowers are symbolized as efforts. Fruits are compared to the end result of liberation, enlightenment. Therefore we are taught to learn from the flowers that result fruits after full blooming: studying Buddha's teachings. Practicing mind and Bodhisattva's compassionate actions.

꽃은 마지막에 열매를 맺게 하고 해탈은 끝없는 정진으로 완성된다. 이와 같이 꽃은 정진을 상징한다. 과일은 해방과 깨달음의 결과로 비유된다. 그러므로 꽃이 만개한 후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이 수행하는 마음과 보살의 자비를 실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누리공방

불단 · 달집(천궁)
전문 공방입니다. 법상 · 경탁등
박연호 함장

TEL : 031)543-7073 (공방)
H·P : 011)703-9130
FAX : 031)543-5727

제1기 佛敎儀式 (범음·범패) 學人모집

한국불교범음회에서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초급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식, 쇠승, 상단예불, 불공시식 등
·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정관음시식, 다비식 등 (기초범음, 범패)
· 고급과정 (6개월)	요잡바라, 천수바라, 작법(나비춤), 사십구제, 예수제, 수륙제 (전문 범음, 범패)

- 모집인원 : 〇〇명 (선착순)
- 개강일시 : 2002년 4월 22일 (음 3월 10일) 오후 2시
- 매주 강의 요일 : 수, 목 (오후 5시 - 7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 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 전화 · 서신 문의하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화상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원광사 회장겸 강주 김도진

사무실 051)554-1518
회 장 011)846-1518
총 무 011)816-3909, 054)372-3639

한국불교범음회 의식교육원

제11회 행원문화상 수상자 신청 받습니다

본 재단에서는 매년 불교 문화 발전을 위하여 훌륭한 업적을 이룩하신 분들을 찾아 포상하고 있사오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많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상 부문

구분	대 상	인원	상 금
역경상	불전을 국역하거나 역경사업에 이바지하신 분	1명	300만원
문학상	불교사상을 토대로한 시, 소설, 국문학(희곡, 방송극 시나리오 등)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분	1명	300만원
예술상	1. 불교사상을 토대로 한 예술(음악, 미술, 연극, 무용) 분야에서 업적을 이룬 분(서화부분 제외) 2. 방송, 연예활동을 통해 불교사상을 신앙 홍보하고 대중교화(포교)에 이바지하신 분	1명	300만원

2. 구비서류 : ①신청서 또는 추천서(지정양식) 1 통
②이력서(명함판 사진 3장) 1 통
③공적서 및 증명자료(최근2년내 실적자료) 1 통

3. 제 출 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67 강남종합상가 10동 401호 재단 사무국 (우편번호 137-070) ☎ 02)586-6521-2 FAX 521-9948

3. 신청마감 : 2002년 6월 30일

4. 심사 및 발표 : 본 재단의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개별통지 및 불교관계 신문 발표

5. 시상일 : 2002년 9월 24일 화요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재단 사무국 (02)586-6521-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財團 行願文化財團
法人 理事長 朱永云